

사천왕상의 배치와 천왕문 내부의 방위체계

The arrangement of the Four Heavenly Kings Statues and the Directional System within the four heavenly kings gate building

○강 명 리* 전 봉 희**
Kang, Myeong-ri Jeon, BongHee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arrangement of the Four Heavenly Kings statues and the consequent reframing of the directional system within the four heavenly kings gate building. In the Buddhist world, the Four Heavenly Kings take charge of each cardinal directions, serving as guardians of the Buddhist teachings and realms. In temples, they are typically enshrined within the four heavenly kings gate building. Each Kings' name includes each direction, providing the basis for a new interpretation of the directional system within the four heavenly kings gate building. Furthermore, by applying this interpretation to each case study, the research identifies and confirm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stemming from differences in internal and external conceptions of directionality.

키워드 : 천왕문, 사천왕상, 사천왕신앙, 방위체계, 사찰 배치, 축, 향

Keywords : Four heavenly kings gate building, The Faith in the Four Heavenly Kings, Four heavenly kings statues, Directional system, The site layout of Buddhist Architecture, Axis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수미산의 사천왕천(四天王川)에서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 남, 서, 북 네 영역을 관장하며 불법과 사부대중을 수호하는 사천왕(四天王)은 그 방위에 따라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문천왕으로 불린다.¹⁾ 불법과 불국토를 수호하는 사천왕은 『금광명경(金光明經)』 「사천왕품(四天王品)」에서의 발원문과 함께 호국신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²⁾ 불법의 경계를 지키며 그

안의 불국토를 수호하겠다는 호법(護法)과 호국(護國)의 개념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무형의 사천왕신앙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현해주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은 통일신라 시기 석탑 내 사리기 외함의 조각을 시작으로 탑신, 석등 등 점차 외부로 자리를 옮기다 17세기부터는 천왕문(天王門)에 독립적으로 안치된다.³⁾ 사천왕상은 동방(東方), 남방(南方), 서방(西方), 북방(北方)과 같이 이름에 방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상(像)의 위치에 따라 천왕문 내부에서 진입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사찰 배치에서 천왕문이 갖는 향(向)과 천왕문 내부에서 사천왕상의 위치에 따라 재편되는 방위로 천왕문 내, 외부에서 서로 다른 방위 체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천왕문은 사천왕상을 안치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배치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천왕신앙의 원리와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천왕신앙의 발달 과정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 사천왕상의 배치에 따라 천왕문 내부에서 재편되는 방위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천왕문 내부에서의 방위체계가 사찰 전체 배치에서 갖는 특성과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우선 불교 경전과 사천왕신앙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사

*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park@snu.ac.kr)

이 연구는 2023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o2020R1A2C2101056)

1) 양산시, 『양산 통도사 천왕문 기록화 조사 보고서』, 2022, p. 128.

2) “세존이시여, 우리들 사왕과 2부(部)귀신들과 한량없는 백천 귀신은 사람의 눈보다 뛰어난 하늘 눈으로써 언제나 이 염부제를 보살피고 옹호하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런 까닭에 우리들을 ‘세상을 보호하는 왕’이라 일컫나이다. (중략) 세존이시여, 우리들 사왕은 다시 지성스런 마음으로 이 임금과 그 나라 백성들을 옹호하여 모든 재난을 없애 주고 안락을 얻도록 하겠나이다...” , 『금광명경(金光明經)』 「사천왕품(四天王品)」 권 2 내용 발췌

3) 임영애, 「천왕문의 등장: 사천왕상의 봉안위치와 역할」, 『신라문화』 52, 2018. 08, pp. 53-59.

천왕상과 천왕문의 바탕이 되는 사천왕신앙의 기본 원리와 전개 과정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천왕상의 지물과 배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있는 천왕문 56동⁴⁾을 대상으로 사천왕상의 지물과 존명, 위치를 파악했고 이와 함께 사찰의 절대 방위와 천왕문의 진입 방향, 주불전의 축을 비교해 천왕문 내, 외부 방위체계의 특징을 구분했다.

2. 천왕문의 확산과 방위체계의 구축

2.1 사천왕사(四天王寺)의 소멸과 천왕문의 대체

천왕문의 바탕이 되는 사천왕신앙은 『금광명경(金光明經)』의 「사천왕품(四天王品)」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발전하였는데 경전에 따르면, 사천왕은 부처에게 경전을 따르고 널리 퍼뜨리는 중생과 임금 그리고 국가를 옹호하고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을 발원한다.⁵⁾

호국신앙으로 자리잡은 사천왕신앙의 의미는 사천왕사(四天王寺)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79년 신라 최초의 성전사원으로 조성된 사천왕사는 선덕여왕릉이 있는 남산의 남쪽에 위치했는데, 당시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불국토 신라의 입구이자 경계지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⁶⁾ 다시 말해, 신라의 경계에서 신라 전역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호국성이 짙은 국가사찰이었다. 사천왕사는 사천왕신앙의 소의경전인 『금광명경(金光明經)』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천왕이 신라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이끌어내고자 건립되었고, 이와 동시에 사천왕사에서 거행되는 문두루비법(秘法) 등 불교 도량은 불국토인 신라가 당(唐)의 침략 뿐 아니라 어떤 외력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왕권의 중심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도 사용되었다.⁷⁾

사천왕사는 정확한 문헌 기록 없이 폐사 후 방치되어 건립 이후부터 소멸까지의 구체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사천왕사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사천왕신앙을 종교적,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사천왕신앙은 사천왕상(四天王像)의 등장과 함께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발견된 사천왕상 중 가장 이른 사례는 감은사지 동·서 삼층 석탑 사리기 외함(682)의 조각인데, 임영애(2018)⁸⁾는 등장 초기에는 탑 내부를 지키던 사천왕상은 8세기 중엽부터 탑신 석등에 조각되면서 점차 내부에서 외부로 자리를 옮기고, 이후에는 불전에 불상과 함께 안치되었다가 1337년 양산 통도사 천왕문⁹⁾을 기점으로 사천왕상은 사찰입구에 독립적

으로 안치되는 큰 흐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17~18세기에는 임진왜란 이후 사찰 재건을 진행하면서 천왕문이 집중 조성되었고, 천왕문은 사찰 입구에서 진입공간을 구성하는 산문 중 하나가 되어 사찰의 경계를 구분하고 경내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 사천왕상이 사찰에서 옹호해야 하는 대상과 영역은 점차 확대되는데, 구체적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종교 교리와 더불어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림 1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 사리기 외함(좌, 682년),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우, 8세기 추정)

2.2 천왕문 내 지물과 사천왕상의 방위 상징체계 확립

사천왕은 지물과 방위로 각자의 상징체계를 구축하는데, 수미산의 동, 남, 서, 북을 관장하던 사천왕을 중앙을 통로로 사용하는 천왕문에 안치하게 되면서 사천왕상 배치법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¹⁰⁾ 사천왕상의 지물과 배치를 정리하기 위해 초기 경전 『다라니집경』¹¹⁾과 『다라니잡집』¹²⁾, 사천왕상의 복장유물과 17~18세기의 탱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천왕상의 배치법을 분류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동북쪽부터 ①→②→③→④의 순서를 매겨 구분하였다.(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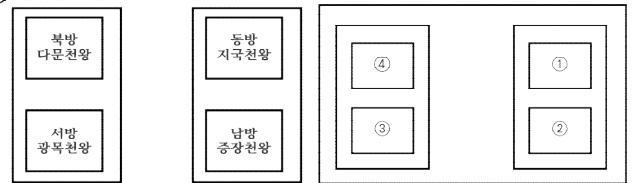


그림 2 『다라니잡집』에 따른 사천왕상 배치

그림 3 사천왕상 순서 기준

특히 『다라니잡집』에서는 동북각에 동방지국천왕, 동남각에 남방증장천왕, 서남각에 서방광목천왕, 서북각에 북방다문천왕을 모셔야 한다는 배치법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¹³⁾ 초기경전인 『다라니집경』과 『다라니잡집』을

서는 이를 천왕문의 등장 시점으로 본다.

¹⁰⁾ 이대암, 「조선시대 라마계 천왕문의 수용 및 전개에 대하여 - 천왕문의 배치와 사천왕 배열에 관한 문제-」, 『건축역사연구』 16(6), 2007. 12, pp. 56-59.

¹¹⁾ 『다라니집경』 권 11

¹²⁾ 「사천왕주경」, 『다라니집경』 권 11

4) 국보, 보물급 문화재를 포함하고 있는 사찰이면서 천왕문이 있는 경우 중 사천왕상 또는 사천왕탱이 안치되어있지 않거나 현존하는 천왕문의 조성연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5) 「사천왕품」, 『금광명경』 권 2

6) 윤선대, 「신라 중대 성전사원과 밀교 - 중대 국가의례의 시각화와 관련하여-」, 『신사학고대』 44, 2015.6, p. 6.

7) 윤선대, 위의 논문, p. 19.

8) 임영애, 앞의 논문, pp. 53-65.

9) 현재 발견되는 천왕문의 기록 중 가장 이른 것으로, 본 연구에

표 1 지물에 따른 사천왕상 분류

유형	사례 수	①	②	③	④
A	43	비파	칼	여의주, 용	보탑, 보당
B	4	칼	비파	여의주, 용	보당
C	5	보탑, 보당	비파	칼	여의주, 용
기타	4	-	-	-	-
합계	56				

표 2 경전과 목서명, 탕화에 제시된 사천왕상 지물과 배치 (사천왕상의 존명을 東, 南, 西, 北으로 표기하였다.)

		①	②	③	④
다라니집경 (654 한역)	지물	칼, 보배	칼, 창	창, 새끼줄	창, 불탑
	배치	-	-	-	-
다라니잡집 (연도 미상)	지물	-	-	-	-
	배치	東	南	北	西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1628)	지물	비파	칼	여의주, 용	보탑, 보당
	배치	北	東	南	西
김천 직지사 사천왕상 (1665)	지물	비파	칼	보탑, 보당	여의주, 용
	배치	北	東	南	西
마곡사 석가모니불 괘불탱 (1687)	지물	비파	칼	여의주, 용	보탑, 보당
	배치	北	東	南	西
천은사 아미타후불탱화 (1776)	지물	비파	칼	여의주, 용	보탑, 보당
	배치	北	東	南	西

제외한 17~18세기의 목서명과 탕화에서는 ①→②→③→④의 순서대로 ‘비파→칼→여의주, 용→보탑, 보당’의 지물체계와 ‘북방다문천왕→동방지국천왕→남방증장천왕→서방광목천왕’의 규칙적인 배치체계가 파악된다. 56동의 연구 대상 분석 결과, 43동에서 천왕문 내부의 동북쪽부터 ‘비파→칼→여의주, 용→보탑, 보당’으로 앞서 정리한 표 2의 17세기 이후 지물 체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다라니집경』과 17~18세기의 자료들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매우 크므로 추가적으로 사천왕신앙 초기의 경전과 문헌을 분석하고, 사천왕상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천왕문의 사천왕상 배치에 있어서는 크게 2가지의 배치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¹⁴⁾, 첫 번째는 동, 남, 서, 북의 기존 방위에서 시계방향으로 회전해 북방다문천왕과 동방지국천왕, 서방광목천왕과 남방증장천왕이 짝을 이루는 경우(그림 4의 ①)이고, 두 번째는 절대 방위 기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해 동방지국천왕과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과 북방다문천왕이 짝을 이루는 경우(그림 4의 ②)다. 배치법을 구분하는 회전 방향의 근거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로서는 주불전에 안치된 본존불 또는 서방극락정토의 미타신앙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13) 권중서, 「불교 경전으로 보는 사천왕」, 『문헌과 해석』 65, 2013. 12, pp.120-121.

14) 이대암, 앞의 논문, pp. 5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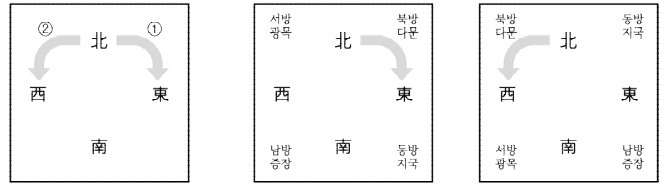


그림 4 천왕문 내 사천왕상 배치법 구분

3. 천왕문의 사천왕상 배열 방식과 방위체계 조정

3.1 천왕문의 진입방향과 사천왕상의 배치 순서

동, 남, 서, 북은 고정된 방위개념이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배치는 달라진다. 천왕문 내부에 안치된 사천왕상의 존명은 ‘북방다문천왕’과 같이 이미 방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천왕문 내부에서 진입방향을 바라보는 방위체계를 새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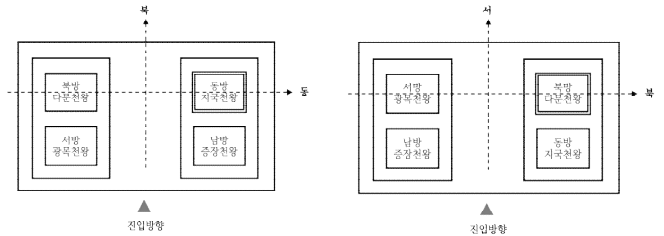


그림 5 향북형 방위체계

그림 6 향서형 방위체계

즉, 사천왕상의 배치에 따라 사찰 전체 배치에서의 절대 방위와는 다른 천왕문 내부만의 방위체계가 발생한다. 천왕문의 내, 외부로 달라지는 방위체계를 해석하기 위해 총 56동의 연구 대상 중 사천왕상의 존명이 제시된 사례 31동을 대상으로 사천왕상의 위치와 존명, 지물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천왕문 내부 중앙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배치와 서쪽을 바라보는 배치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두 가지 유형을 각각 향북형(向北型)과 향서형(向西型)으로 지칭하였다. 향북형은 그림 3의 사천왕상 배치 순서에서 ①에 동방지국천왕이 안치된 경우, 향북형의 경우 전체 31동 중 15동이 해당되었고, 향서형의 경우 전체 31동 중 15동이 해당되었다. 향서형과 향북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의 경우는 보성 대원사 사천왕루(2015)인데 ①→②→③→④의 순서대로 서→동→남→북으로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어 불교의 동, 남, 서, 북 방위 개념에서 벗어난 경우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향북형 배치와 지형적 조건

천왕문 내부의 동북쪽에 동방지국천왕이 안치된 경우¹⁵⁾, 동방지국천왕의 자리를 동쪽으로 고정한다면 천왕문

내부에서 사찰 경내를 바라보는 것은 북쪽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며, 이를 향북형(向北型)이라 칭한다.

분석 대상 총 31동 중 15동¹⁶⁾이 해당하는 향북형은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점차 그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20~21세기에 집중 조성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 분포한다.

천왕문의 내, 외부 방위체계를 비교했을 때 향북형인 천왕문이 실제로 북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15동 중 12동이 해당된다. 천왕문 내, 외부의 방위개념이 일치하는 사례들은 또한 대부분 주불전의 축선을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주불전과 같이 중요한 건물은 대지의 가장 안쪽에 남면(南面)하여 자리하는 일직선형 배치형태¹⁷⁾를 반영해 사찰 내의 큰 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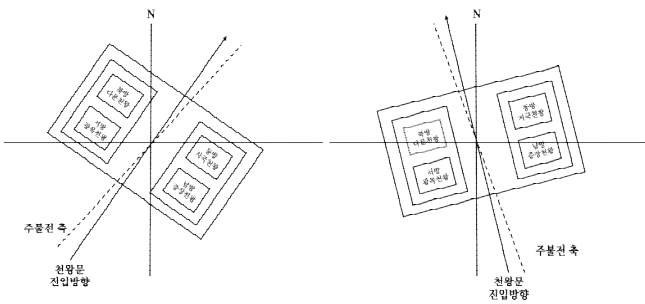


그림 7 합천 해인사 천왕문(좌), 부안 내소사 천왕문(우)

추정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15동 중 12동이 전라도에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천왕문의 내, 외부 방위체계를 비교해보면 향서형인 천왕문이 실제로 서쪽을 향해 배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15동 중 14동이며, 주불전 축과 천왕문의 축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체 15동 중 11동으로 확인되었다. 향서형의 경우 천왕문 내, 외부 방위체계가 대부분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향북형과 같이 주불전의 축선상에 놓여 있어 사찰 내에서 주불전과 천왕문을 잇는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천왕문 내부에서 서쪽을 바라보도록 방위체계가 재편되는 것은 극락세계의 아미타불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 미타신앙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는데, 이는 사찰 내 아미타불의 안치 여부와 극락전, 무량수전 등의 전각 유무와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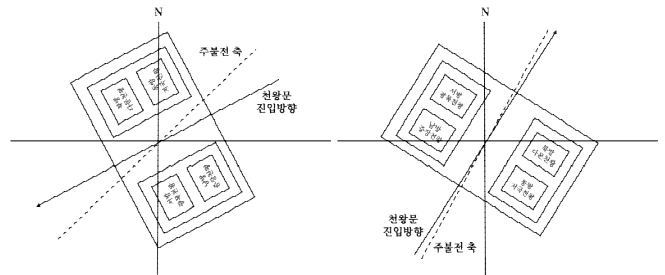


그림 8 순천 송광사 천왕문(좌), 구례 화엄사 천왕문(우)

3.3 향서형 배치와 미타신앙

천왕문 내부의 동북쪽에 북방다문천왕이 안치된 경우¹⁸⁾, 북방다문천왕의 위치를 ‘북’으로 고정한다면 천왕문 내부에서 사찰 경내를 바라보는 것은 서쪽을 바라보는 것과 같으며, 이를 향서형(向西型)이라 칭한다.

분석 대상 31동 중 15동¹⁹⁾이 포함되는 향서형은 17세기부터 21세기에 걸쳐 전체적으로는 사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천왕문이 집중적으로 조성되는 17~18세기에 많은 유형으로 향북형에 비해 고식(古式)으로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천왕신앙의 발달과 전개를 바탕으로 사천왕상의 지물과 배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재편되는 천왕문 내부에서의 방위체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천왕문에서 사천왕상의 배치는 동, 남, 서, 북의 체계를 최대한 따르고 있으나 천왕문의 동북쪽에 동방지국천왕을 안치하거나 북방다문천왕을 안치하는 방법 두 가지로 달라지며, 이를 바탕으로 천왕문 내부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향북형과 서쪽을 바라보는 향서형으로 방위체계가 조정된다. 향서형과 향북형은 시기적, 지역적으로 분포에 차이를 갖지만 공통적으로 사찰 배치에서 주불전과 천왕문을 잇는 하나의 큰 축을 형성하는 시작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적 특성의 배경에는 각 사찰의 불교적 성격과 지리적 조건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밖에도 천왕문은 사찰의 산문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통로로 인식되지만, 사천왕상을 안치하고 정기적으로 사천왕제와 같은 불교 의식이 치러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전(殿)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문(門)과 전(殿)의 중간적 성격은 일본, 중국의 사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한국의 천왕문이 갖는 배치적, 공간적 특징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하였다.

16) 향북형의 사례로는 영광 불갑사 천왕문(1608), 보은 범주사 천왕문(1620), 흥천 수타사 봉황문(1674), 포항 보경사 천왕문(1761), 합천 해인사 봉황문(1821), 남해 용문사 천왕각(1896), 화성 용주사 일주문(1977), 부안 내소사 천왕문(1986), 김천 고방사 옹호문(1987), 김제 금산사 천왕문(1994), 구례 천은사 천왕문(1996), 예산 수덕사 천왕문(2000), 대구 동화사 옹호문(2004), 부안 개암사 천왕문(2015), 구례 연곡사 천왕문(2019)이 있다.

17) 엄중섭, 「불교우주론과 사원구조의 관계성 고찰」, 『건축역사연구』 17(1), 2008, p. 68.

18) 그림 3의 사천왕상 배치 순서 중 ①에 북방다문천왕이 안치된 경우를 가리킨다.

19) 향서형의 사례로는 순천 송광사 천왕문(1612), 구례 화엄사 천왕문(1632), 완주 송광사 천왕문(1633), 김천 지지사 천왕문(1665), 장흥 보림사 천왕문(1666), 고창 선운사 천왕문(1680), 창녕 관룡사 천왕문(1713), 공주 마곡사 천왕문(1910), 장성 백양사 사천왕문(1917), 강진 무위사 천왕문(1974), 평창 월정사 천왕문(1974), 화순 쌍봉사 천왕문(1990), 순천 동화사 봉황루(1992), 나주 불회사 천왕문(2002), 해남 미황사 천왕문(2013)이 있다.